

# 광주·전남 3분기 가계대출 올들어 최대

1조4944억원...규제 불구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 이끌어  
2금융권 9월 신규 대출 급증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3분기 광주·전남 신규 가계대출 금액이 올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잇단 규제에 신규 신용대출 등은 다소 약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9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예금취급기관 신규 가계대출 금액은 1조4944억원(광주 9353억원·전남 7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4.0%(2085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분기별 신규 가계대출은 1분기 1조767억원, 2분기 1조835억원에 이어 3분기 1조6944억원으로 오르며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과 2금융권은 지난 9월부터 대출 규제를 본격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9월 광주지역 금융기관 신규 가계대출은 32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6%(829억원) 증가했고, 전담보다는 171.9%(2082억원) 급증했다. 전담과 비교한 9월 광주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8.1%)을 압도적으로 웃돌았다. 전남 가계대출은 전담보다 0.8%(-15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광주 3분기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9월 광주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589억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 36.3%(689억원) 증가, 전담보다는 138.2%(150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남 9월 주택담보대출은 전담보다는 33.4%(-432억원) 감소하고, 전담보다는 1.2%(10억원) 늘어난 861억원을 기록했다.

광주 주택담보대출 급증 영향을 받아 3분기 광주·전남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조383억원으로, 올해 최대(1분기 6145억원·2분기 409억원)를 찍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급감하면서 2금융권으로 쏠렸다. 지난 9월 광주·전남 예금은행 기타대출 신규 금액은 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2%(-626억원) 줄고, 전담보다 91.7%(-750억원) 급감했다. 반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서 생긴 '풍선효과'로 2금융권 신규 대출은 1년 전보다 66.1%(679억원), 전담보다 328.4%(1307억원) 급증한 1705억원으로 나타났다. 노민재 한은 광주전남본부 조사역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규제하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줄이지는 못하면서 주담대라도 유지하려는 수요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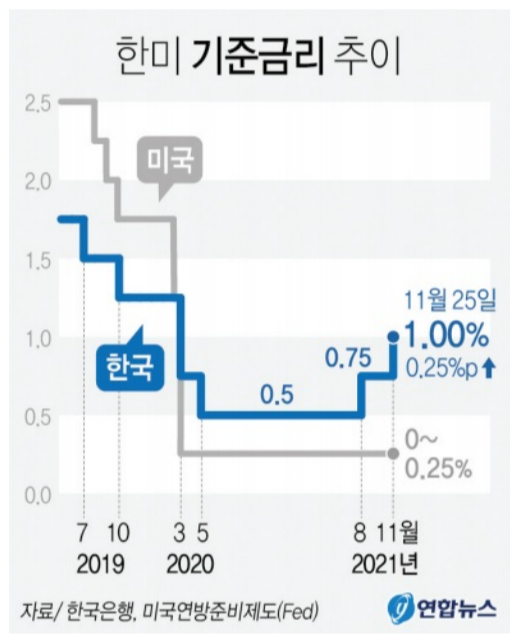


광주은행 '한겨울 심터' 운영  
광주은행 직원이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고객들이 찬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한겨울 심터' 운영을 알리고 있다. 내년 2월25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143개 영업점에서 운영하며 핫팩과 KF94 마스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제공>

## 한은 기준금리 인상...물가·가계대출·집값 잡는다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은행들 일제히 예적금 금리 인상

25일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로 올라 서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은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0.5%포인트 내린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뒤 같은 해 5월 추가 인하(-0.25%포인트)에 이어 9차례 동결을 거쳤다. 올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5개월 만에 인상됐고, 이후 3개월 만에 1%로 오르며 '제로 금리' 시대가 끝이 났다. 한은 측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4.0%와 3.0%로 유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2%를 상단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 2% 수준



대표적 수산물(플러사다모아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8월1일 0.9%에서 같은 달 말 0.99%로 올랐다. 이후 9월 말 1.11%, 10월 말 1.29%, 이달 24일 기준 1.37%로 오르는 추세다. 대출금리도 상승국선을 그리기는 마찬가지다. KJB개인신용대출 매달 평균금리는 7월 3.54%에서 8월 3.75%, 9월 3.90%, 10월 3.90%로 오르다 이달 24일 기준으로는 4.24%가 됐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물가 불안이 가계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대출금리와 가계 대출 연체율은 각각 1.13%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면 가계 대출금리는 1.03%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 대출금리가 1.03%p 상승하면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1174만가구의 가구당 이자 부담액 증가분은 연간 149만 1000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코스피	2980.27 (-14.02)
코스닥	1015.66 (-4.47)
금리(국고채 3년)	1.933 (-0.080)
환율(USD)	1190.20 (+3.70)

## 회원제보다 비싼 대중골프장 품수영업 철폐

권익위 전국 512개 골프장 조사  
공정위 등에 관리·감독 강화 권고

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보다도 이용요금이 비싼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에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다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서비스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1120원의 개별서비스 절감분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훨씬 적은 셈이다. 아울러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 사학연금, 800억 규모 펀드 운용사 4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아주아이비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SV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국내 VC 출자규모는 총 800억원 이내로 4곳의 위탁운용사에 각 200억원 출자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지난날 6~19일 받아 1차 정량평가를 거쳐 대상 8곳을 선정했다. 이들 8개사는 현장실사와 이달 23일 투자심의위원회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4개사가 추려졌다. 주명현 이사장은 "우수한 VC 위탁운용사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산업 생태계 발전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ESG투자 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VC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에이티비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3곳을 선정해 총 6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